

경기도-기후부-한국에너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청제공

소규모 태양광도 실시간 관리해 전력망 안정성 강화

경기도의 제안으로 8월부터 일반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도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이같은 내용의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체결했다.

REGO는 집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한 재생에너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발급된 인증서는 기업의 RE100 이행실적으로 활용되며, 그간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소비 전력에도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

경기도는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실증사업을 8월부터 추진한다.

도는 370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하고 발

전량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수집한 주택태양광 발전량을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규모 자가설비의 데이터 수집과 전국 확산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인증서 판매 수익을 얻고, 기업은 RE100 이행수단을 확대할 수 있다. 도민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활용하는 새로운 상생모델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한 그동안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제안해 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 모델이 정부 REGO 제도로 도입된 데 이어, 일반 가정의 주택태양광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첫 실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그동안 별도의 인증 체계가 없었던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해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하는 'G-REC' 모델 도입을 검토하며, 정부에 제도 도입을 지속 건의해 왔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은 10kW 이상 설비로 한정되어, 가정에 가장 많이 설치된 3kW 주택태양광은 빠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설치된 주택태양광은 총 135MW, 약 4만 5천 가구 규모다. 이미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성장한 만큼 REGO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함양 양파, 대만 수출 확대한다

대만 시장 공략 본격화...누적 1457톤 수출

함양군은 16일 오전 11시 지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양파 생산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협 양파 대만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적식은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하면서 양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가격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해외시장 판로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농협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농가의 판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수출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농협경남지역본부 및 NH농협무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9일 대만 첫

선적(24톤)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약 200톤의 함양 양파를 대만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함양군은 지난 6월 4일 올해 첫 양파 수출을 시작한 이후 군과 농협경제지주, NH농협무역이 협력해 현재까지 총 1457톤의 양파를 해외시장에 수출하며 함



▲양파(픽사베이)

포항시, 축사 밀집 지역 긴급 살수 지원 실시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동원해 열 식히기 총력

포항시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살수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으로 축사 내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생산성 저하와 폐사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항시는 포항축협의 협조를 받아 공동방제단 방제차량을 동원해 축사 지붕과 주변 시설에 살수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및 축사 관리 요령을 안내

하는 등 현장 예찰 활동도 병행했다.

시는 올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냉방시설, 축사 환기시설, 축사 단열처리, 안개분무시설, 젖소농가 대형선풍기, 사료첨가제 및 미네랄제제 지원 등 총 3억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축산분야 상황관리 TF를 운영한다. 읍·면·동, 축협,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취약농가 예찰, 폭염 대응요령 홍보, 긴급 급수 및 살수 지원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축 음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농가에는 긴급 급수 지원과 함께 축사 냉방·전기시설 점검을 병행하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폭염은 가축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폐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포항축협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폭염 대응시설 지원과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합천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악취저감과 자원순환 강화로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울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왔다.

또한 생산된 액비를 경종농가에 환원함으로써 경종순환농업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합천축협은 이번 개보수를 통해 노후된 산기배관을 교체하여 액비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고, 특히 액비정제설비 도입으로 확보한 재이용수를 악취포집 및 액비생산시설에 재투입함으로써, 물 사용량을 감

축하고 고품질 액비 생산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강병천 축산과장은 "이번 개보수 사업을 통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여 지역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합천군농기센터전경

양주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접수

서면·현장 조사 거쳐 연말 지원금 지급

양주시는 2025년 농장에서 생산하고 도축한 염소고기기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 오는 8월 3일까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이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

해 주는 제도다.

올해 지급 단가는 마리당 60,35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에 염소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2025년에 염소고기를 생산

해 도축·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진영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영민 기자
yungran528@hanmail.net

www.kfeedia.or.kr

| 한국단미사료협회

- 정부위탁업무
- 회원사 지원사업
- 교육훈련사업

|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연구소

- 사료품질 및 안전성 검사
- 세계적 분석 검정능력 강화 및 확보
- 사료분석방법 개발 등 분석교육 지원사업

TOGETHER
WE CAN!

안전한 대한민국 사료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단미사료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단미사료협회

KFAIA 한국단미사료협회
Korea Feed Ingredients Association

본 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KFAIA 회관

사료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미래산단4로 95

Tel. 02)585-2223

Tel. 044)863-5790